

# 문명 교류의 허브 ‘교역항’에서의 수공업 생산: 사천 늑도 유적의 수공업 공방지 재조명\*

고일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역항은 물자의 집결과 해상·육상 유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종종 수공업 공방지가 함께 조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공방지의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교역항에 조성된 수공업 공방지의 성격이 그 교역항의 성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고대 교역항인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목적으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수공업 활동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늑도에서 확인된 철기 및 토기 생산의 직·간접적 증거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일종의 경험적 도구(heuristic tool)를 확보하기 위해 교역항에서 철기 및 토기 생산이 이루어졌던 다른 시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역항에서 철기/토기 생산이 일어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항해’라는 특수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의 생산이다. 둘째는 새로운 물자 및 기술의 유입이 일어나는 ‘교역항’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물품의 생산으로, 이렇게 생산된 물품은 흔히 내륙으로 유통되었다. 셋째는 ‘해상교역’을 위한 교역품의 생산으로, 이 경우에는 항해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교역항은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확인함으로써, 비록 본고에서 늑도에서 진행된 수공업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방법론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교역항, 수공업 생산, 철기, 토기, 해상 활동

##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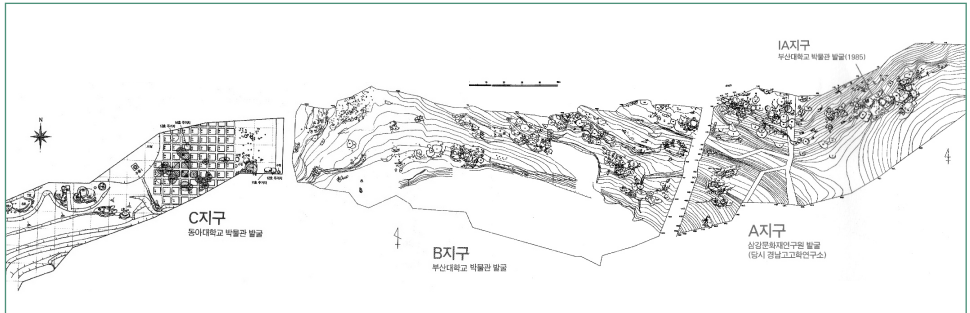
교역항은 “땅과 바다의 경계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환경이 만나는 교류의 중심지이며 물자, 노동력, 자본의 출입지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문화, 지식, 정보가 수용되고 전달되는 망의 중심지(nodal center)의 역할을 가진

\* 이 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24523).

다. 이와 같은 교역항의 본질적 기능으로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혼종의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이 마련되기도 한다”(Tan, 2007: 852). 교역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천 늑도 유적이다. 기원 전후 무렵까지 약 2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제 교역항으로 기능했던 이곳에는 다양한 지역의 물자와 주민이 모여들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종종 서로 다른 문화의 혼종이 일어기도 했다. 전자는 다양한 매장품습이 공존하는 늑도의 무덤 구역에서, 그리고 후자는 ‘구들’이라는 이질적인 난방 시설이 설치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원형 주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늑도에는 이질적 문화·지식·정보의 수용·전달·융합이 일어났던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있었는데, 수공업 생산 구역이 바로 그곳이다.

늑도에서는 철기, 토기, 골각기, 직물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직·간접적 증거가 확인되어, 이 고대 교역항에 상당한 규모의 수공업 공방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늑도에서 이루어졌던 수공업 생산의 직접적 증거는 늑도가 항구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편이지만, 전자에 대한 관심은 후자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런데 늑도의 ‘국제 교역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수공업 생산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고고학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교역항에 조성되었던 공방지의 성격이 그 교역항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허브였던 늑도의 ‘국제 교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우선 그곳에 일어났던 수공업 생산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확인된 늑도에서의 수공업 생산의 특징들이 그 교역항의 성격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수공업 생산이 일어났던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교역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교역항에서 이루어졌던 수공업 생산 활동이 그 교역항이 가지고 있던 문명 교류의 허브의 역할과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 목표이다.



출처: 국립진주박물관(2016: 21).

그림 1 사천 늑도 유적의 유적 분포도

## II. 늑도 교역항의 배경

사천 늑도(勒島)(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2006a; 2006b; 2006c; 2006d;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2008; 동아문화연구원·사천시, 2006; 부산대학교박물관, 1989; 2004)는 삼천포시와 남해군 사이의 바다에 위치한 작은 표주박 형태의 섬으로, 1985년 이래로 수차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섬 전체에 걸쳐 고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1). 특히 철기시대(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전후 무렵) 동안에는 이 섬이 활발한 국제 교역의 무대가 되었는데, 이는 늑도의 패총(貝塚), 매장지, 주거지, 공방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외래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낙랑계 유물로는 화폐, 청동거울편, 철기, 토기 등이, 일본계 유물로는 야요이 토기가, 그리고 어쩌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유물로는 상감구슬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외래유물들은 한반도 남부, 중국/낙랑, 그리고 일본 열도의 교역망들이 당시에 늑도에서 만났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외래유물 중 일부는 다양한 지역의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늑도에 모여들었음을 시사해준다. 일례로, 늑도의 매장지에서는 다양한 장례풍습이 확인되는데,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경남고고학연구소에 발굴한 A 지구 매장지의 92-1호 묘와 95호 묘의 장례풍습이다. 이 두 무덤은 모두 합구식 옹관묘(合口式甕棺墓)로, 92-1호 묘에는 성인, 그리고 인접한 95호 묘에는 1

살 정도의 유아가 매장되었는데, 흥미롭게도 두 무덤 모두에서 한반도 근해에서 서식하지 않는 개오지 조개껍질이 발견되었다. 성인 무덤의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목걸이 장식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개오지 조개껍질이 피장자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개오지 조개껍질을 활용하는 이러한 장례풍습은 선사시대 한반도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sup>1</sup> 92-1호 묘의 성인과 95호 묘의 유아 모두 늑도에 거주했던 외래주민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늑도에 발견되는 다양한 중국/낙랑계 유물들은 ‘사행무역’의 결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김병준, 2011). 따라서 중국/낙랑계 교역 집단이 늑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머물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늑도는 그 면적이 46헥타르(약 14만 평)에 불과한 작은 섬으로, 국제 교역항으로 기능했을 당시의 인구를 지탱하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늑도에서 출토된 동물 유존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슴 뼈(87.3%)의 양상에 주목할 수 있는데, 사지 뼈 및 관련 부위가 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타 지역에서 수렵, 도살, 그리고 1차로 해체되었던 사슴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섬이지만 늑도에서는 해양 포유류나 어류의 유존체가 매우 적게 확인되어, 주변의 바다 식량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곳의 주민들이 식량 자원을 외부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신 수공업 활동 및 교역 등에만 전념했던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준정, 2006: 35, 54). 그렇다면 늑도의 식량 자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쌀을 비롯한 다양한 식량자원은 한반도 남부 해안가 지역과 일본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115-116). 늑도와 인접한 해안가 지역의 경우에는 늑도에서 소비되었을 정도의 식량 자원을 생산 및 집결시켰을 만한 동 시기의 거점이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 없으나, 사천 이금동 유적 근방 미조사 구역에 삼각형점토대토기 유물산포지가 존재한다는 것은(고은별 개인교신) 이러한 거점이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철기시대 늑도의 구성원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토착 주민’뿐

<sup>1</sup> 개오지 조개가 김해 패총에서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가슴 위에 개오지 조개를 올려놓는 독특한 방식의 매장 의례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사천 늑도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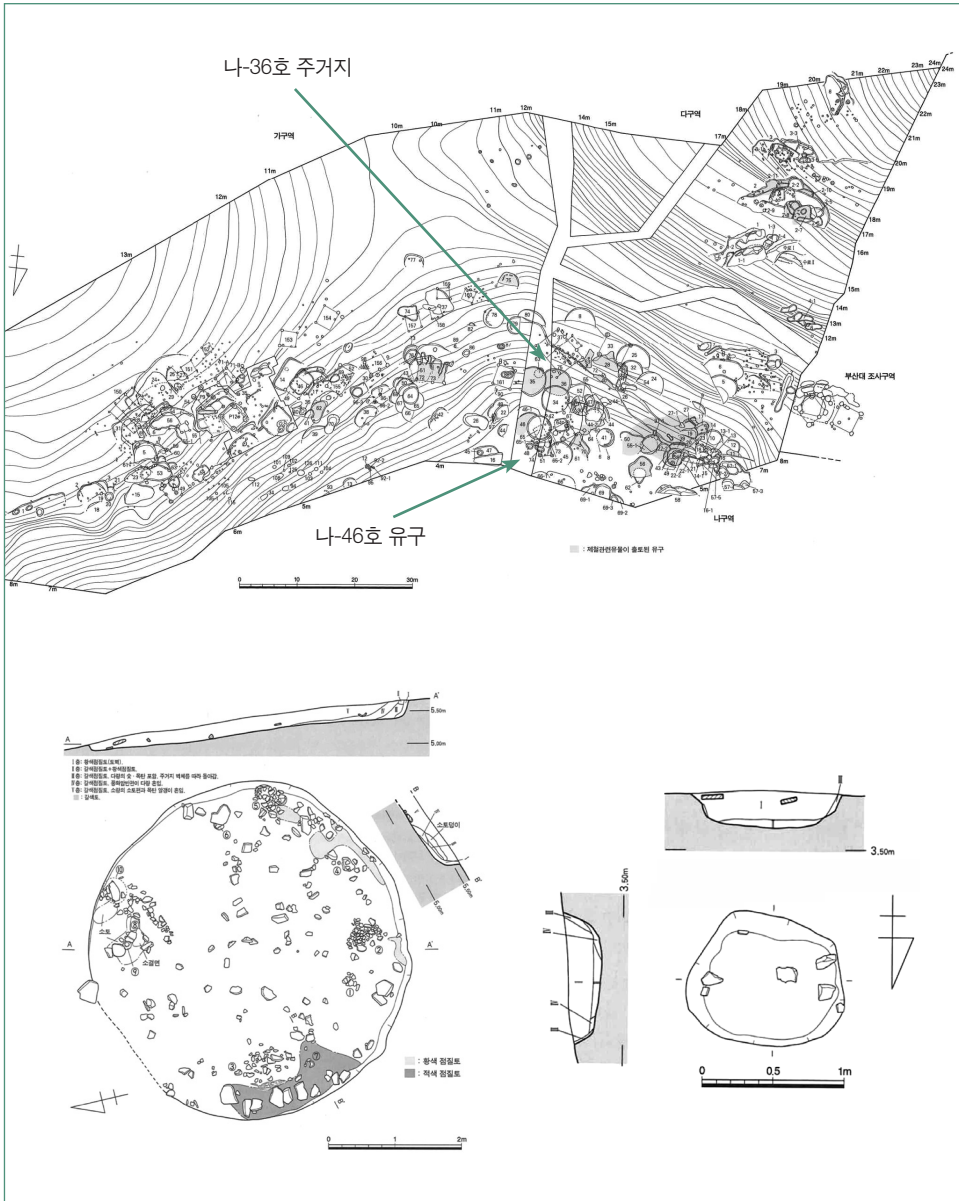
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렀던 한반도 남부 지역의 '재지계 집단'과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외래계 집단'으로도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성격의 집단들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맥락 속에서 이 국제 교역항의 공방지들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늑도에서 진행된 수공업 생산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다.

### III. 교역항에서의 수공업 생산 - 철기

#### 1. 늑도에서의 철기 생산

늑도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 관련 유구가 A 지구 가, 나, 다 구역에 걸쳐 발견되었다(그림 2 상단 도면의 빗금 친 부분). 이곳에서는 노벽편, 송풍관, 철재, 단조박편 등이 출토되어 당시 이 교역항에서 일어났던 철기 생산의 면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노벽편의 존재는 제련 혹은 정련/용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데, 늑도에서는 유출재(流出滓)가 확인되지 않아 일단 제련공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8). 다만 '나' 구역 36호 주거지(그림 2 하단 왼쪽 도면)에서는 용해로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완형 철재가 출토되어 늑도에서 용해로의 조업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11). 또한 '나' 구역 48호 유구(그림 2 하단 오른쪽 도면)에서는 100여 점의 단조박편이 철재, 노벽편, 소철괴편과 함께 출토되어 늑도에서 단야 공정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8).

늑도에 단야 공방지, 즉 대장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교역항인 늑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머물렀으며, 그 사람 중 일부는 철제 도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철제 도구를 수리해줄 수 있는 대장간은 교역항의 중요한 시설 중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당(唐)대 이전 선박의 구조나 건조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중국의 고대 해전에서 쇠를 덧댄 파성퇴(破城槌)나 쇠갈고리가 사용되었다는 『월절서(越絕書)』나 『묵경』의 기록을 보면(Needham, 1986: 678-82) 당시 늑도에 정박



출처: 경남고고학연구소(2016: 156, 203; 2016d: 9).

**그림 2** 녹도 유적 A 지구 내 제철 관련 유구의 분포 양상(상단). 나-36호 주거지(왼쪽 하단)와 나-48호 유구(오른쪽 하단) 도면

했던 선박 중 일부에는 철제 부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선박의 철제 부품을 수리하거나 제작해 주는 대장간은 이 교역항의 필수 시설이었을 것이다. 즉, 녹도의 대장간에서는 교역항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기의 제작 및 가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역항으로서의 녹도와 교역품으로서의 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널리 인식되어 온 사실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을 보면, 한반도 동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철이 낙랑 및 왜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녹도가 그러한 철 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녹도를 거점으로 유통되었던 철 교역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철 소재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철제 도구(소위 '철기')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자는 녹도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한반도 내륙에서 생산된 철 소재가 녹도를 거쳐 낙랑, 일본 등으로 공급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철기의 생산지 및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최종규의 경우에는 녹도에서 철기가 생산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철기가 한반도 내륙 및 낙랑,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내륙으로 공급된 철기는 중개무역의 형태로 전달된 낙랑계 철기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녹도에서 낙랑 및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철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녹도에서 생산된 철기가 교역품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115).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가? 즉, 녹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의 철기 생산을 넘어, 수출할 목적으로의 철기 생산까지 이루어졌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녹도에서는 용해로에서 조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곧 주조 철기가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11). 특히 B 지구 가-245호에서는 내범이 제거되지 않은 주조철부 2점이 끈에 묶인 상태로 출토된 바 있어서(이재현, 2009) 녹도에서 주조철부가 교역품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철기 교역품을 생산하던 시스템의 규모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녹도 B 지구와 C 지구의 발굴 보고서가 아직 전부 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또한 녹도에서 출토된 철기와 한반도 내륙 및 일

본에서 출토된 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구체적인 제작 기술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철기 제품들이 늑도에서 생산되고 당시의 해상 교역망 속에서 유통되었는지 파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늑도에서 진행된 철기 생산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교역항에서 이루어진 철기 생산의 다른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교역항 철기 생산의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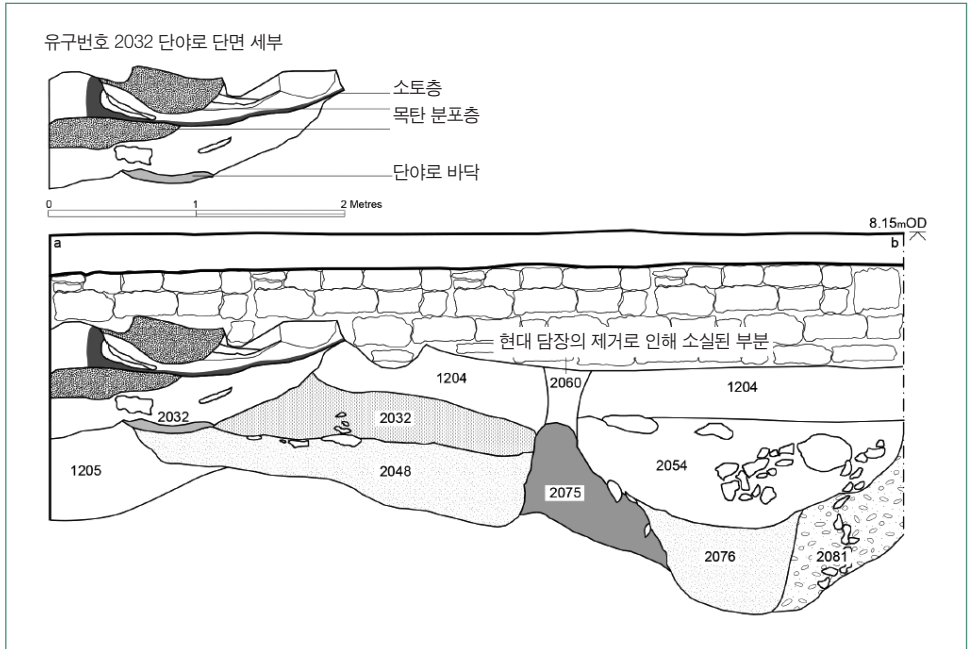
### 1) 건지섬 성 피터 항구에서의 철기 생산

늑도의 단야 공방지에서 생산되었던 철기가 항구 내에서 소비되었는지, 아니면 교역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교역항에 대장간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우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역항에서의 대장간 시설은 창고 시설이나 선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만큼이나 당연한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한 것으로, 그 교역항의 성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건지섬(Guernsey)섬 성 피터 항구(Saint Peter Port)의 사례(Sebire et al., 2018)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다.

건지섬은 영국의 관할하에 있지만,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 있다. 따라서 이곳은 철기시대부터 브리튼-프랑스-이베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교역망에 속해 있었다. 건지섬에서 교역되었던 중요한 물품은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 다량의 토제 소금 생산 용기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 혹은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역시 교역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건지섬의 중심 항구는 아마도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성 피터 항구였다. 이 항구의 배후에는 계곡이 있었고, 그 계곡의 말단부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점유된 마을이 조성되어 있었다. 철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견된 프랑스 바이유 지방(Baiocasses)의 청동 화폐의 존재는 당시 이 교역항의 면모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철기시대 동안 성 피터 항구에서 철기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철기시대의 뒤를 이은 로마 정복기 시대에 들어와서도 성 피터 항구는 활발





출처: Sebire, de Jersey and Monaghan(2018: 30).

**그림 3** 건지 섬 성 피터 항구 본디드 스토어 지점 B2 트렌치 단야로 중 하나(유구번호 2032)

한 교역항으로 기능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수입 토기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여전히 철기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기원 후 2세기 무렵부터 이 교역항에는 대장간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본디드 스토어(Bonded Store) 지점 B2, C1, D4 트렌치에서 발견된 단야 공방지 및 제철 관련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다(Sebire et al., 2018: 55). 특히 B2 트렌치에서는 단야로로 보이는 노지 세 곳과 제철 작업의 부산물인 슬래그와 목탄, 그리고 노지에서 배출되어 나온 슬래그가 흘러 들어간 수혈이 발견되었다(그림 3 참고). 또한 불을 맞은 썩은 동물 뼈도 발견되었는데, 보고자는 이것을 연료로 보고 있으나, 조재제(flux)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노지 부근의 소토층에서는 다수의 철제 못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철못과 철판 이외의 철기는 단야 공방지를 비롯한 전체 발굴 구간 내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로, 로마시대 문화층에서 발견된 청동제 유물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성 피터 항구는 철기시대부터 채널 해협의 거점 교역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이곳에 대장간 시설이 마련된 시점은 그것보다 한참 뒤인 기원후 2세기 무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생산품이 철제 못이었던 것을 보면, 이 대장간이 교역항에 설치된 계기는 특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 피터 항구 앞바다에서 발견된 난파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송진 가공물을 적재하고 있던 기원후 3세기대의 이 선박은 지중해 전통이 아닌 갈리아 혹은 브리튼 전통에 따라 거대한 철제 못을 이용하여 선체를 결구하였다. 참고로 성 피터 항구의 단야 공방지에서 출토된 못 중에는 잔존 길이가 7.5cm, 잔존 너비가 2.5cm인 제품도 있다(285번 유물)(Sebire et al., 2018: 100). 또한 기원후 2세기 무렵부터 성 피터 항구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암포라 및 주전자형 토기가 다수 유입된 정황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그것이 선박 제작 전통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교역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성 피터 항구에서의 철기 공방지의 조성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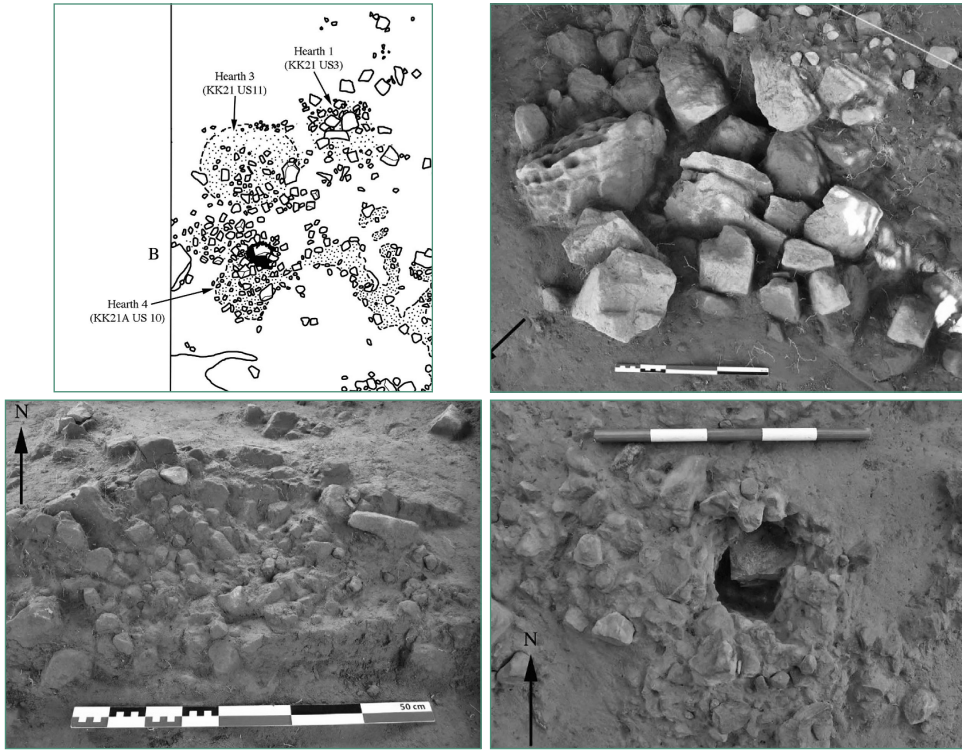
## 2) 태국 남부 말레이 반도 교역항에서의 철기 생산

태국 남부 말레이 반도 지역은 기원전 1천 년 기 중반부터 인도양과 남지나해를 아우르는 해상 교역망에 편입되었으며, 바로 이 무렵부터 철기 제작이 시작되었다(Bellwood, 2007). 크라 지협(Kra Isthmus)의 서쪽 및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푸카우통(Phu Khao Thong) 유적과 카오삼케오(Khao Sam Kaeo) 유적은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역항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Biggs et al., 2013), 최근에 들어와 카오삼케오로부터 대략 80km 남쪽에 위치한 카오섹(Khao Sek)에서도 교역항 유적이 조사되었다(Petchey et al., 2018). 대략 동시대로 편년 되는 이 세 곳의 유적에서는 다양한 수공업 공방지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철기 제작의 흔적도 발견되어 녹도에 대한 연구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푸카우통의 경우에는 안다만해가 조망되는 언덕 위에 수공업 구역이 조성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이곳에서 취락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거주지가 근처의 반클루에녹(Ban Kluay Nok) 유적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푸카우통의 공방지에서는 인도산 토기와 함께 전문화된 유리 및 석제품 생산의 증거가 확

인되었다. 하지만 지표조사 당시 슬래그의 발견으로 기대되었던 것과는 달리, 발굴조사 결과 철기 제작 공방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카오삼케오와 카오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Biggs et al., 2013: 313). 이 두 유적은 연대도 동일하고(중심연대가 기원전 3세기), 입지도 비슷하며(해안가로부터 8~10km 떨어져 있는 강의 하구에 위치), 두 곳에서 진행된 석기, 유리 및 청동기의 생산은 동일한 원료 공급 시스템과 동일한 유통 시스템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오삼케오는 카오셴에 비해 규모나 사회 복잡도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체 유적 면적의 0.1%만 발굴된 카오삼케오에서는 75kg 이상의 슬래그와 60여 점의 철기, 그리고 다수의 철편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무려 50여 kg의 슬래그가 확인되었으며, 슬래그의 형태가 '볼록한 단야 노지 바닥의 형태(plano-convex smithing hearth bottom)'를 띠고 있고, 또한 송풍관이나 노벽의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그곳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철 소재를 가지고 철기를 제작했던 단야 공방지로 여겨진다. 단야 노지의 슬래그 속에서는 부식된 슬래그 파편이 발견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된 공방지였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Biggs et al., 2013: 312-313).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철기 제품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의외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사실 카오삼케오의 다른 수공업 공방지에서는 교역품의 생산을 위한 전문화된 생산 시스템이 운영되었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고, 또한 슬래그의 양으로 보아 이곳에서 철기의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여, 철기의 제작 역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탄소 함량의 조절, 열처리, 담금질 등과 같은 기술의 적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Biggs et al., 2013: 326). 또한 샘플 한 점에서만 철 소재에 대한 단야 작업을 통해 철의 경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포착되었고, 분석된 나머지 철기 제품의 경우에는 단야 작업을 통한 단순 가공행위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시 중국에서 생산되었던 철기 제품에서는 탄소 함량의 조절, 열처리, 담금질 등이 모두 확인되는 만큼(Biggs et al., 2013: 327), 카오삼케오의 단야 공방지에서는 숙련도가 낮은 장인들이 토착 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철기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단순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카오삼케오의 수공업 장인들도 처음에는 소비



출처: Petchey et al.(2018: 62, 64).

**그림 4** 태국 크라 지협 카오섹 유적에서 조사된 3기의 철기 제작 관련 노지(1호, 3호, 4호) 평면도(왼쪽 상단) 및 1호(오른쪽 상단), 3호(왼쪽 하단), 4호(오른쪽 하단) 노지 사진

자로서 철기를 접했다가, 이후 철의 기술적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철기 제작 기술을 독자적으로 터득해 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sup>2</sup>

한편, 카오섹 유적의 경우에는 비록 출토 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발굴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단야 공방지가 확인되어,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석기, 토기, 청동기,

<sup>2</sup> 참고로 카오삼케오에서는 다른 종류의 금속기도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리 제련 관련 슬래그와 토제 도가나가 발굴을 통해 수습되었고, 전세품이지만 유적 주변에서 발견된 사암제 용법도 있다(Pryce et al., 2008).

그리고 유리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이 교역항의 수공업 구역에서는 세 곳의 서로 다른 형식의 단야 노지, 대장간 도구, 그리고 돌담으로 축조된 단야 공방지가 확인되었다. 단야 노지가 조성된 바닥면으로부터 60cm 내려간 지점에서는 단야 노지 슬래그와 토제 받침대가 발견되어 그 공방지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Petchey et al., 2018: 62). 세 곳의 노지는 바닥에 수혈을 파고 그 안에 돌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사용된 돌의 크기나 그 축조 방식이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단야 공정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호 단야 노지의 경우에는 매우 얇고(깊이 12cm) 그 안에 철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미 제작된 철제 도구의 열간 단조가 이루어진 낮은 온도(600°C 이하)의 단야 수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Petchey et al., 2018: 68).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단야 공방지가 운영되었을지라도, 카오섹에서도 철기의 생산기술은 다른 수공업 제품의 생산기술에 비해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카오섹에서의 청동기 생산은 인도에서 온 선진 제작 기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생산 체계 내에서 토착 주민을 위한 청동 제품뿐만 아니라, 교역품인 청동 괴도 제작되었다. 카오섹에서 높은 주석 함량의 청동 괴와 청동 괴 용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유적 주변에 주석 및 구리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반면, 카오섹의 단야 공방지에서 제작된 철기 제품이 교역품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낮다(Petchey et al., 2018: 71-72).

### 3) 영국 남부 도셋 지역의 푸울만 교역항에서의 철기 생산

고대 교역항에서의 대규모 철기 생산에 관한 사례들은 적지 않은 편이다. 고대 에트루리아의 유일한 교역항이었던 포풀로니아(Populonia)에서는 대규모 철 제련이 이루어졌으며, 이곳에 생산된 철제품은 해상을 통해 널리 교역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2m 높이로 쌓여 있던 슬래그 더미들의 존재는 이곳에서의 제련 활동이 얼마나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교역항인 포풀로니아에서 철의 제련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매우 흥미롭다.

포풀로니아의 앞바다에 위치한 엘바섬(Elba Island)은 철광석이 풍부한 곳으로, 원래는 이곳에서 철의 제련이 직접 이루어졌으나, 산림의 황폐화로 연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육지의 포풀로니아로 철광석을 운반하여 이 교역

항에서 철을 제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Crew, 1991). 또한 말레이 반도 부장 계곡(Bujang Valley)의 송가이 바투(Sungai Batu) 유적에서는 고대 항구 시설, 난파선 등과 더불어 대규모의 제철 유구가 발견되어, 기원후 3~5세기 동안 이곳에서 교역 품 철정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제철 유구에서는 철재, 송풍관, 슬래그, 목탄 그리고 잘게 부서진 철광석이 발견되어 철의 제련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소가 300년 동안 철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광석 산지와 인접하고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지 때문이었다. 아울러 항구에 인접했기 때문에 생산된 철 소재의 운반도 매우 용이했다(Morkhtar et al., 2011).

이러한 포폴로니아나 송가이 바투의 경우는 육지의 철 원료를 연료가 부족한 섬으로 운반하여 진행했던 늑도에서의 철 생산과는 너무도 다른 사례에 해당되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헝스럽게도 늑도와 유사한 조건 속에서 교역항에서 철기 생산이 이루어진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영국 푸울만(Poole Harbor)의 그린섬(Green Island)에서 일어났던 대규모의 철기 생산이다(Wilke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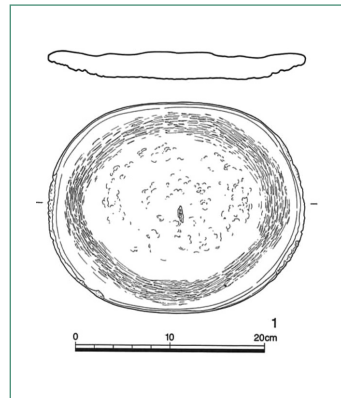
영국 남부 도셋 지역의 푸울만 너머에는 영국 해협(English Channel)이 있어서 이곳은 철기시대 이래로 활발한 해상 교역의 무대가 되었다. 푸울만의 내항에는 세 개의 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섬들과 육지의 오워반도(Ower Peninsula)에서 해상 교역 활동의 다양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교역항의 중심이었던 오워반도와 인근의 퍼지섬(Furzey Island)에서도 철기 생산(주로 단야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Wilkes, 2004: 177, 182),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곳은 그린섬이다. 이 작은 섬에서는 발굴조사가 매우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졌으나, 두 종류의 수공업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세일석 팔찌의 생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철제품의 생산이었다(참고로 그린섬은 세일석이나 철광석의 원산지가 아니다). 철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제련과 단야의 증거가 모두 발견되었으며, 특히 소규모의 테스트 피트에서 발견된 슬래그의 양으로 보아 철제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Wilkes, 2004: 201, 204). 이렇게 생산된 철제품과 세일석 팔찌가 오워반도의 교역항을 통해 수출되었던 주요 교역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Wilkes, 2004: 207). 그렇다면 오워반도가 아닌 그린섬에서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 그린섬과 오워반도 사이

에 고대 부두 시설의 흔적이 발견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부두 시설의 잔해는 로마 정복기시대 이후에 해당되지만, 앞선 철기시대에도 유사한 시설이 존재했을 것으로 평가된다(Wilkes, 2004: 210-213).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린 섬을 접근하기 힘든 ‘별도의 섬’으로 보기보다는, 푸울만 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역항 복합장소(harbor complex)’ 내에서의 ‘별도의 구역’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 IV. 교역항에서의 수공업 생산 – 토기

##### 1. 늑도에서의 토기 생산

사천 늑도에서 토기 생산의 직접적 증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리하여 늑도를 철기, 골각기, 직포, 석기 등이 생산된 ‘상공업집락’으로 인식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토기 생산의 가능성은 다루지 않았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d: 115). 하지만 몇 가지 증거를 보면 다양한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던 이 고대 교역항에서 토기 역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경남고고연구소에서 조사한 A 지구 패총구간의 무문시대<sup>3</sup> 패총 ‘바’ 층에서는 고래 척추뼈가 한 점 발견되었는데(경남고고학연구소, 2006c: 183, 도면 78-1), 고래 척추뼈의 흔적이 일본 조몬시대 토기 저부에서 확인된 바 있어서, 늑도에서 출토된 이 고래 척추뼈가 토기 제작용 받침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출처: 경남고고학연구소(2006c: 183).

**그림 5** 사천 늑도 A 지구 패총 출토 고대 척추뼈

<sup>3</sup> 이 보고서에서는 점토대 토기가 출토되는 문화층을 ‘무문토기시대 후기’로 규정하고, 약식으로 ‘무문시대 패총’ 등으로 부르고 있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c: 139-40).



출처: 국립진주박물관(2006: 73).

그림 6 사천 늑도 출토 추정 중국 토기 모방품

있다(국립진주박물관, 2016: 171). 물론 그 발견 맥락이 공방지가 아닌 패총(폐기장)이기는 하지만, 타원형 접시 형태에 장축 지름이 대략 25cm가 되는 이 고래 척추뼈는 토기 제작용 받침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또한 그 측면을 따라 확인되는 마연 흔적은 이 뼈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가공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늑도의 고래 척추뼈를 토기 성형 도구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그림 5).

림 5).

사천 늑도의 토기 소성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동아대박물관에서 조사한 C 지구 '나' 구역에서는 다수의 '소토유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나' 구역의 서남쪽 끝부분에서 소성된 점토 덩이로 이루어진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그 아래 지점에서 숯을 포함한 검은 빛의 소토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회원(灰原) 부분과 다수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동아대박물관 늑도 지도위원회, 2001). 발굴 보고서의 미간으로 이러한 소토유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토기 소성 시설로 선불리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늑도에서 출토된 재지계(비외래계) 토기 중 일부가 개방형의 야외수혈에서 소성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sup>4</sup> 토기 소성의 장소로 보지 않을 이유도 없는 듯하다.

한편, 정황상 늑도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토제품의 존재도 이 교역항에서 토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늑도에서는 다량의 활석제 및 토제 국자가 발견되었다. 국 종류를 뜨기 위해 사용된 국자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늑도가 교역항으로 성장한 시점부터 갑자기 나타났는데, 낙랑 권역권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국자가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낙

<sup>4</sup> 정수옥·나가토모(2009: 58-59)는 사천 늑도 출토 비외래계 산화소성 토기에서 관찰되는 '봉상형 흑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덮개형 야외소성'이 진행된 것과 달리, 늑도의 비외래계 토기는 별도의 덮개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소성 구덩이 내부에 땔나무 연료와 가까이 배치된 상태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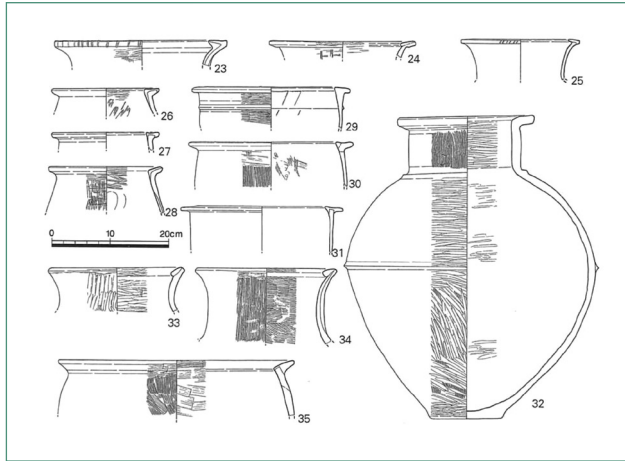


량 문화의 영향으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제 국자와 관련해서 “樂浪에서의 勺의 盛行이 勒島에 영향을 미쳐 다량의 土勺을 제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최종규, 2006: 112)와 같은 해석이 존재하는바, 토제 국자의 제작이 늑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토기의 제작 역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천 늑도에서는 ‘중국 토기 모방품’으로 알려진 두 점의 토기가 발견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 2006: 73). 물론 이러한 모방품이 늑도가 아닌 낙랑 권역권에서 생산되어 늑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늑도의 중국계/낙랑계 토기가 일반적으로 회색 및 회백색 계열의 환원소성 제품인 것과 달리, 이 두 점의 토기는 연한 적갈색 계열의 산화소성 제품으로, 그 형태만 중국 토기를 모방하고 있을 뿐, 그 색채는 재지계 토기와 다를 바가 없다(그림 6).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두 점의 ‘중국 토기 모방품’은 환원소성이 정착되지 않은 기술전통에 속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의 본토 지역이나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중국 토기 모방품이 늑도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 즉 중국계/낙랑계 토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늑도의 토기 장인이 모방품을 제작했다는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셋째, 사천 늑도에서는 다량의 소형 토기가 발견되었다. 간단한 기술로 제작된 이러한 소형 토기는 제의 행위에서 사용된 것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부터 등장한다. 가장 이른 사례의 소형 토기들이 해안가(사천 늑도, 해남 군곡리)와 저습지(신창동)를 중심으로 발견된다는 점과 특히 늑도에서만 소형 국자형 토기가 확인되고 다른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은(김정율, 2013) 소형 국자형 토기를 비롯한 소형 토기의 제작이 늑도에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늑도에서 확인되는 ‘擬야요이 토기’의 존재 역시 사천 늑도에서 토기 생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擬야요이 토기’란 “彌生土器와 매우 닮았으나 無文土器 要素가 一部 보이는 例(擬彌生土器 a類)와 無文土器에 彌生土器의 要素가 一部 보이는 例(擬彌生土器 b類)”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武末純一, 2006: 18).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늑도의 토기 공방에서 일



출처: 경남고고학연구소(2006d: 27).

그림 7 사천 늑도 A 지구 출토 擬彌生土器(a類: 23-32; b類: 33-35)

본 야요이 토기의 영향을 받은 토기 제작 활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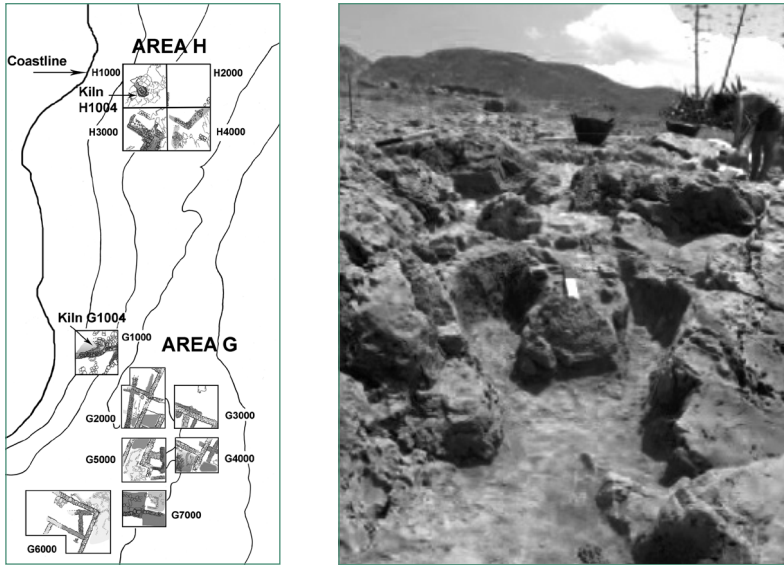
물론 사천 늑도는 규모가 작은 섬으로, 연료 및 토기 원자재의 공급 문제로 토기 생산에 제약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철기 노(爐)의 흔적들이 발견된 사실이나, 골각기의 제작을 위해 본토로부터 사슴 뼈가 대량으로 공급된 정황은 늑도에서 일정 규모의 토기 생산이 지속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상기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필자는 늑도에서 토기의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연구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만약 늑도와 같은 교역항에서 토기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토기 생산의 성격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대의 교역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토기 생산이 이루어졌는가?

## 2. 교역항 토기 생산 체계의 사례들

### 1)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 교역항에서의 토기 생산

동지중해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크레타섬은 미노마 문명의 중심지로, 이곳의



출처: Hayden et al.(2012: 509; 2006: 35).

**그림 8**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 유적 서쪽 해안가 사면에 조성된 가마 2기의 위치와(왼쪽), H 구역 가마의 모습(오른쪽)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항구들은 당시의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중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Priniatikos Pyrgos)는 크레타 동북 해안가의 곳(串)에 위치한 교역항으로, 그 앞바다의 모래톱은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배후에는 당시에 중요하게 소비되었던 수공업 제품들의 원료 산지가 분포하고 있어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점유된 이 유적에서 수공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Hayden et al., 2006). 특히 이곳은 토기 생산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양질의 점토와 풍부한 연료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요한 첨가제로 사용되었던 화강섬록암(Granodiorite) 산지도 인접해 있었다. 아울러, 이곳에서 조사된 2기의 미노아 단계 토기 가마를 보면 곳의 서쪽 사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는데(그림 8), 서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은 자연 송풍을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Hayden et al., 2012: 509).

이러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의 토기 공방에서는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토기 표면에 붉은색과 검은색을 발

현시킨 화병 모양의 바실리케 토기(Vasilike Ware) 제품이 생산되었고, 그 토기는 이곳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을 통해 지중해 지역권 내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런데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의 토기 공방에서는 바실리케 토기 이외에 또 다른 성격의 토기 제품도 생산되었다. 그것은 바로 크레타 지역의 토산품인 포도주, 꿀, 올리브유를 선박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운반용 용기였다(Hayden et al., 2012: 540-544).

즉,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에서는 ‘교역품’으로서의 토기뿐만 아니라, 교역의 과정에서 소비되는 ‘소모품’으로서의 토기도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교역항에서 ‘교역품’ 토기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은 크레타가 다양한 자원이 풍부한 대규모 섬이자 선진문물의 발원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인데, 이 측면에서는 늑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에서 ‘소모품’ 토기가 생산되었던 것은 그곳이 ‘교역항’으로서의 장소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늑도에서의 토기 생산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2) 입스위치 교역항에서의 토기 생산

대서양의 북해 권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로 둘러싸고 있는 권역) 내에서는 기원후 7~8세기 무렵에 다수의 교역항이 동시기에 조성되었다(Coutts, 1991: 27). 서양 학계에서는 이것들을 ‘엠포리움(emporiu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는 지중해 세계의 교역 식민지(植民市)를 지칭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북해 권역의 엠포리움들은 플라니가 말한 ‘교역항(port-of-trade)’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Coutts, 1991: 26). 입스위치(Ipswich)는 영국 동남부 지역에 조성되었던 엠포리움으로, 오웰강 하구의 북쪽 하안 단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적합한 자연 정박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앞선 로마시대에는 교역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앵글로-색슨시대에 들어와서 야 이스트 앵글리아 왕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입스위치가 엠포리움의 역할을 담당했던 중기-색슨시대에는 ‘콕스 레인(Cox Lane)’ 구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수공업 단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160m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토기 소성 관련 폐기물이 확인되어, 중기-색슨시대 영국의 토기 생산 거점 중에서도 토기 생산이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

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입스위치에서 생산되었던 대표적인 토기는 '입스위치 토기(Ipswich ware)'로, 이 회색 계열의 경질 토기는 회전판을 이용해 성형하였으며, 가마에서 소성되었다(Coutts, 1991: 178). 이 토기는 영국 동부 지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어서, 그것이 꽤 넓은 유통망을 가졌던 '교역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국 중부 및 북부 지방에서는 중기-색슨시대 토기가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입스위치 토기는 하나의 위신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입스위치에서는 유럽 대륙에서 온 다양한 토기가 확인된 바 있다. 우선 입스위치 토기가 제작되기 이전인 7세기 전반부터 프랑스산 흑도 및 라인강 지방의 토기가 유입되었다. 이 유럽산 토기의 영향을 받아 입스위치 토기의 제작 전통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유럽산 토기에 적용된 물레 성형이 아닌 회전판 성형을 활용한 것으로 보아, 입스위치 토기 제작은 유럽 대륙에서 넘어온 장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럽의 선진 제도 기술을 모방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한 토착 장인 집단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Coutts, 1991: 193). 또한, 8세기부터는 켈른, 라인, 노르방디 지방과 프리지아 제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토기들이 입스위치에 도착하였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가 '교역품'이었다기 보다는 교역항에 거주했던 상인들이 사용했던 제품이거나 교역품인 포도주를 담았던 용기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Coutts, 1991: 41).

결국, 입스위치에서 진행된 토기 생산 역시 '교역항'이라는 그곳의 장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의 사례와는 반대의 양상이 보인다. 즉, 입스위치는 선진문물이 출항하는 곳이 아니라 선진문물이 도착하는 곳이었으며, 그곳에 도착한 선진 토기 제품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토착 토기 제작 전통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교역항에 도착한 유럽 대륙의 교역품들은 영국 동부 지역을 아우르는 교역망 속에서 다시 유통되었는데, 이때 입스위치 토기도 동일한 유통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유럽 대륙산 교역품과 함께 유통된 점은 입스위치 토기의 위신재로서의 가치를 향상하는 데 분

<sup>5</sup> 유럽 대륙 토기가 출토된 51곳의 중기-색슨시대 유적 중 33곳에서는 입스위치 토기가 함께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18곳의 경우에도 입스위치 토기가 출토된 유적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Coutts, 1991: 188).

명히 기여했을 것이다.

### 3) 메르사 가와시스 항구에서의 토기 생산

이집트인들은 지중해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도 해상 활동을 펼쳤다. 홍해에서 이루어진 해상 활동의 상당 부분은 홍해 남부에 위치한 ‘펀트(Punt)’와 ‘비아 펀트(Bia Punt)’와의 교역을 위한 것이었는데, 문헌으로만 그 이름이 전해지는 이 장소들에서는 이집트 의례의 필수적인 요소인 향과 황금, 상아, 흑단 등과 같은 사치품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집트인들은 구왕국시대부터 펀트와 비아 펀트를 방문했고, 중왕국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곳으로 향하는 출항지가 메르사 가와시스(Mersa Gawasis)에 조성되었다(Wallace-Jones, 2018: 1).

메르사 가와시스는 산호 단구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으로부터 12km 떨어진 곳에는 식수원이 있고, 주변에는 연료를 제공해주는 맹그로브 숲이 분포했으며, 산호 단구의 말단부에는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지만 나일강 계곡의 풍요로움에 익숙한 이집트인들이 홍해 서안의 척박한 환경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는지, 메르사 가와시스는 선박이 펀트와 비아 펀트로 출항하거나 그곳에서 돌아올 때만 한시적으로 점유되었다. 특히 발굴조사를 통해서 임시 시설물의 흔적과 함께 산호 단구의 단면을 파고 들어간 8개의 인공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동굴 내부에서는 선박용 목재, 닻, 노끈 등 보관되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펀트와 비아 펀트로부터 돌아온 선박은 메르사 가와시스에서 해체한 다음에 동굴에 보관하고, 그 선박에 실려 온 물품만이 당나귀 등을 이용하여 나일강 계곡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Wallace-Jones, 2018: 2).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점유되었던 메르사 가와시스에서 토기 제작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WG19 구역에서는 소성되지 않은 토기와 소성 과정에서 폐기된 토기가 확인되어, 이곳에서 소규모로나마 토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메르사 가와시스와 같은 성격의 항구에서 어떠한 종류의 토기가 생산되었는가? 이 항구에서는 토기 말고도 다른 물품의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항해를 위한 식량, 즉 빵과 맥주의 생산이었다. 특히 메르사 가와시스의 ‘생산 구역’으로 여겨지는 WG19 구역에서는 수백 점에 이르는 토제 빵틀이 발견되었는데(Wallace-Jones, 2018: 15), 일

부 연구자들은 바로 이러한 토제 빵틀들이 메르사 가와시스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Perlingieri and Childes, 2016). 물론 당시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되었던 토제빵틀이 현지에서 제작되었음을 입증해주는 대규모의 소성 시설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연구자도 있다(참고로, 다수의 소형 수혈식 소성 시설은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토기 생산의 증거가 메르사 가와시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SU49 소성 수혈이다. 대략 60cm의 지름을 가진 이 얇은 수혈에서는 반복적인 소성을 나타내는 소토층이 바닥에서 발견되었으며, 수혈 안에서 아직 소성되지 않았던 제빵 관련 쟁반이 발견되었다. 참고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빵을 이러한 쟁반 위에 놓고 구웠으며, 빵틀은 맥주의 원료가 되는 절반만 구운 빵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한다(Perlingieri and Childes, 2016: 139).

메르사 가와시스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양상은 결국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충분한 식량의 보급이고, 제아무리 한시적으로 점유된 항구일지라도 식량 보급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은 진행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메르사 가와시스에서는 식량의 확보에 필요한 토제 쟁반과 아마도 토제빵틀이 제작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늑도에서 보급되었을 식량의 성격과 그것을 가공하는데 사용되었을 기자재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늑도에서 이루어진 토기 및 기타 도구의 생산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V. 고찰

교역항에서 철기 및 토기의 생산이 이루어진 바 있는 상기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항해'라는 특수한 활동으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의 생산이었다. 해상활동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가 이동하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자이고, 마지막 하나는 선박이다. 성공적인 항해란 이 세 가지의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항해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항구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진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항해 도중에 섭취할 식량의 확보 및 안전한 보관이 매우 중요한 일

이었을 것이다. 이집트의 항구인 메르사 가와시스에서 발견된 빵틀과 제빵 관련 쟁반이 이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미 언급했듯이 빵틀은 맥주의 원료가 되는 빵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쟁반은 먹는 빵을 굽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다. 그런데 식량의 조리에 사용되는 이러한 토기는 소모품으로, 식기용 토기나 저장 용기에 비해서 훼손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메르사 가와시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점유된 취락이나 수공업 공방의 부재 속에서도, 항해를 위한 식량 준비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해진 조리용 토기를 생산하는 행위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자의 안전한 해상 운반을 위해서는 특수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에서 제작된 포도주, 꿀, 올리브유의 운반용 토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곧 이러한 토산품의 집결 및 운반 준비가 항구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 시스템에 따라 교역품의 생산지에서 그것의 가공 및 운반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Peacock et al., 1989의 사례 참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상 운반용 토기의 생산이 교역항이 아닌 교역품의 생산지 근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듯 교역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교역품의 운반을 위한 토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교역의 과정에서 그러한 용기가 분명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항에서 그것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실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선원과 교역품도 안전할 수가 없다. 철기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선박에도 철제 부속품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철제 부속품은 유실되기도 하도 파손되기도 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품의—그리고 선원들이 지니고 다녔던 철제 공구 등의—대체 혹은 수리는 항구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교역항의 철기 공방들은 대체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되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철기시대 이후의 항구에서 철기 공방이 조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철기시대 이래로 중요한 교역항으로 기능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대장간이 설치된 건지섬 성 피터 포트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교역항에서 진행된 철기 및 토기 생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물자 및



기술이 유입되는 그곳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물품의 생산이다. 교역항의 수공업 장인들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물품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교역항의 특성상 그곳의 물자는 내륙으로 향했을 것이고, 이렇듯 내륙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 역시 교역항에서의 수공업 생산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태국의 카오삼케오 유적과 카오썩 유적에서 일어난 철기 생산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이 두 곳의 교역항에는 이미 유리 제품, 청동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공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관련 장인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철기 제품을 소비자로서 접했다가 그 제작 기술을 독자적으로 터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유적에서 발견된 철기의 제작 기술은 그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는 사실이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던 만큼, 이 경우에는 교역항에서의 철기 생산이 토착 주민에게 제공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함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국 입스위치 엠포리움의 록스 레인 수공업 단지에서 일어났던 '입스위치 토기'의 생산 역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스위치 토기'는 이 교역항의 토착 장인들이 유럽 대륙으로부터 수입된 토기를 접하게 되면서 제작하기 시작한 토기로, 교역항이었기에 발생했던 기술혁신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스위치 토기'는 교역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륙으로 향하는 교역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입스위치 토기'는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선진물물'의 유통망에 편승하여 영국 동부 내륙 지역 깊숙이 전달되었고, 토기가 여전히 귀했던 토착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역시 위신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역항에서 이루어졌던 철기 및 토기 생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해상교역'을 위한 교역품의 생산이다.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에서 일어났던 '바실리케 토기'의 생산이 이 사례에 해당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기의 첨가제로 사용된 화강섬록암의 산지가 교역항에 인접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니아티코스 피르고스 유적이 있는 크레타 섬이 당시의 지역권 내에서 '선진물물'의 발원지로, 이 교역항이 이러한 '선진물물'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교역항에서 교역품 토기의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교역항이자 섬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소에서 교역품 철기가 생산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고, 사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영국 도셋 푸울 만의 그린섬도 아직 조사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부두 시설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늑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브리튼의 철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있었고, 이러한 브리튼의 철기를 유럽 대륙으로 운반하기에 매우 적합한 항로의 출발점이 푸울 만이었다는 점이다.<sup>6</sup> 둘째는 그린섬에서 교역품인 세일석 팔찌의 생산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점이다. 다시 말해, 이곳에는 대규모의 수공업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던 환경이었다. 결국, 브리튼의 철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있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작은 섬에서 교역품 철기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늑도에서 이루어진 철기 및 토기의 생산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가? 우선, 철기 생산의 경우, 단순히 섬 내에서 소비될 제품을 생산하는 정도를 넘어, 늑도의 철기 공방에서 멀리는 낙랑까지 유통되었을 교역품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듯하다. 특히 철의 1차 생산에 관여했던 육지의 철 장인들보다, 선진 철기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늑도의 철 장인들이 이러한 교역품의 생산에는 특화되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늑도에서 제작된 철기 제품이 교역품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상 늑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철제품의 제작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늑도, 한반도 내륙, 일본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철기 제품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철 성분 분석도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늑도에서는 토기 생산의 직접적 증거가 아직 미미하거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 자료가 밝혀질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교역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토기 생산의 사례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립진주박

<sup>6</sup> 스트라본에 의하면 브리튼의 대표적 수출품이 금, 은, 철기, 곡식, 소, 개, 가죽, 그리고 노예였다(『지리지』 4권, 5장).

물관에서 2016년에 개최한 “늑도와 하루노쓰지” 전시회 도록에서 ‘중국 토기 모방품’으로 정의한 두 점의 토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두 점의 토기는 형태상으로는 중국 토기와 유사하지만, 적갈색 계열의 산화소성 제품으로 낙랑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보기보다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토착 토기전통의 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또한 일본이나 한반도 남부 본토에서 이러한 모방품 제작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제품이 늑도로 유입될 만한 정황은 쉽게 떠올리기 힘든 만큼, 조심스럽게 두 점의 중국 토기 모방품이 늑도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 토기의 수요자 집단이 되는데, 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입스위치 앰포리움의 ‘입스위치 토기’의 사례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즉, 이 경우에도 선진 제도 기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종류의 토착 토기가 교역항에서 제작되었고, 그것은 실제 수입품과 함께 유통되었다. 따라서 늑도의 중국 토기 모방품도 실제 중국 토기와 함께 한반도 내륙 내에서 유통될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 설령 그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것에 적용된 토기 제작 기술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본고에서는 늑도 유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 고대 교역항에서 일어났던 수공업 생산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늑도에서 진행된 철기 생산에 대한 검토는 늑도에서 일어났던 교역의 다양한 성격과 방향에 대한 질문들로 이어졌고,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시사해 주기도 했다. 또한 늑도의 토기 공방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요소들의 다양한 통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늑도를 배경으로 한 문화접변 및 문화동화의 복잡한 모습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근해 볼 수 있었다. 가령, 늑도의 ‘중국 토기 모방품’과 ‘擬야요이 토기’는 둘 다 늑도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화접변의 산물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낙랑-늑도 교역의 성격이나 지리적 거리를 생각해보면 중국/낙

랑계 집단의 늑도 내에서의 생활은 늑도 거주 일본인 집단의 생활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즉 늑도 내의 소비 활동에서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擬야요이 토기’는 일본인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토기 모방품’가 중국/낙랑계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중국 토기 모방품’은 교역항에서의 문화접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은 도공들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위해 신제품을 생산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擬야요이 토기’는 교역항에서 일어나는 문화접변의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교역항에서 일어났던 문화접변의 모습은 실로 다양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필자가 보기에 사천 늑도가 활발한 문화접변의 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기원후 1세기 이후 국제 교역항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즉, 늑도는 항해의 관점에서 좋은 정박 지점이기는 했으나, 더 강력한 흡인요인(pull-factor)은 그곳이 하나의 경계적 장소로서 한반도계 및 외래계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sup>7</sup> 실제로 늑도의 외래계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늑도에서 확인된 일본계 의례용 토기 및 물품은 이 교역항에서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늑도의 매장지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장법은 외래계 주민 역시 그곳에서 문혔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국제 교역항의 토착계 주민이 외래계 주민에 비해 특별히 우월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발굴된 주거지의 규모 등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매장지 내 무덤들의 분포를 보더라도 특정 무덤을 위한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늑도의 ‘국제 무역을 하기에 좋은(international trade friendly)’ 면모는 활발한 문화접변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늑도의 독특한 면모를 유지해주는 조건 중 ‘국제성’은 늑도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국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래계

<sup>7</sup> 필자는 폴라니(Polanyi, 1963)가 말했던 중립적인 ‘port-of-trade’ 개념이 사천 늑도 유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중립적 장소라는 흡인요인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늑도는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그곳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 교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곳을 특징짓는 유난히 국제적인 면모는 늑도에 거주했던 모든 집단의 노력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원후 1세기의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그러한 면모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와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유물을 실견할 수 없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철기 및 토기 생산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늑도에서 진행된 또 다른 수공업 활동인 직물 생산과 뼈 도구의 가공을 다루지 못했다. 직물 생산의 경우 유럽 바이킹족의 직물 생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내 수공업의 직물 생산 전문화된 생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직물 생산을 방추차/베틀추의 무게의 분포양상을 통해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전문화된 생산 시스템에서는 무게의 표준편차가 작다)(Strand, 2011).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늑도 및 주변 지역의 방추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개별 방추차의 제원이 제공된 경우에도 무게는 기록되지 않았던 관계로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사슴 사지 뼈는 철 도자의 손잡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고은별 개인 교신), 늑도에서 사슴 사지 뼈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사실이 전문적인 뼈 도구 생산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사슴 뼈가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공흔 분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늑도 출토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이 고대 교역항에서 일어났던 수공업 활동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 필자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이다.

## 참고문헌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勒島 貝塚 - A地區 住居群』, 경남고고학연구소.
- \_\_\_\_\_. 2006a. 『勒島 貝塚 II - A地區 住居群』, 경남고고학연구소.
- \_\_\_\_\_. 2006b. 『勒島 貝塚 III - A地區 墓地』, 경남고고학연구소.
- \_\_\_\_\_. 2006c. 『勒島 貝塚 IV - A地區 貝塚編』, 경남고고학연구소.
- \_\_\_\_\_. 2006d. 『勒島 貝塚 V - 考察編』, 경남고고학연구소.
- 국립진주박물관. 2016. 『국제무역항 녹도와 하루노쓰지』, 국립진주박물관.
- 김병준. 2011. 「돈황 현천치한간에 보이는 한대 변경무역: 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 하여」, 『한국출토외래유물』 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정율. 2013. 「삼한시대 소형방제토기 성격에 관한 연구」, 『東亞文化』 14,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泗川勒島 CI』, 동아대학교박물관.
- \_\_\_\_\_. 2008. 『泗川勒島 CII』, 동아대학교박물관.
- 동아문화연구원·사천시. 2006. 『사천녹도진입로 개설구간내 문화유적발굴 조사보고서』, 동아문화연구원.
- 武末純一. 2006. 「勒島遺蹟 A地區 彌生系土器」, 『勒島 貝塚 V - 考察編』, 경남고고학연구소, 18-33.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9. 『勒島住居址』, 부산대학교박물관.
- \_\_\_\_\_. 2004. 『勒島 貝塚과 墳墓群』, 부산대학교박물관.
- 이재현. 2009. 「주조철부」,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s://portal.nrich.go.kr/kor/archeologyUsrView.do?menuIdx=798&idx=6028&st\\_char=&sk=%EC%A3%BC%EC%A1%B0%EC%B2%A0%EB%B6%80](https://portal.nrich.go.kr/kor/archeologyUsrView.do?menuIdx=798&idx=6028&st_char=&sk=%EC%A3%BC%EC%A1%B0%EC%B2%A0%EB%B6%80)
- 이준정. 2006. 「勒島 A지구 출토 동물자료」, 『勒島 貝塚 V - 考察編』, 경남고고학연구소, 34-97.
- 정수옥·나가토모. 2009. 「토기의 탄소부착흔을 통해 본 소성과 조리방법 - 녹도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5, 45-74.
- Bellwood, Peter. 2007. *Prehistory of the Indo-Malaysian Archipelago*.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iggs, Lynn, Bérénice Bellina, Marcos Martínón-Torres, and Oliver T. Pryce. 2013. "Prehistoric iron production technologies in the Upper Thai-Malay

- Peninsula: metallography and slag inclusion analyses of iron artefacts from Khao Sam Kaeo and Phu Khao Thong.”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5, 311–329.
- Coutts, Catherine. 1991. “Pottery and the Emporia: Imported Pottery in Middle Saxon Englan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pswich.” Unpublished DPhil thesis, University of Sheffield.
- Crew, Peter. 1991. “The iron and copper slags at Baratti, Populonia, Italy.” *Historical Metallurgy* 25(2), 109-115.
- Hayden, Barbara J., Yannis Bassiakos, Thanasis Kalpaxis, Apostolos Sarris and Metaxia Tsipopoulou. 2006. “PRINIATIKOS PYRGOS: A Primary Harbor Settlement and Emporium in Eastern Crete.” *Expedition* 48(3), 33-39.
- Hayden, Barbara J. and Metaxia Tsipopoulou. 2012. “THE PRINIATIKOS PYRGOS PROJECT: Preliminary Report on the Rescue Excavation of 2005–2006.” *Hesperi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School of Classical Studies at Athens* 81(4), 507-584.
- Mokhtar Naizatul Akma, Mokhtar Saidin, and Jeffrey Abdullah. 2011. “The Ancient Iron Smelting in SG.Batu, Bujang Valley, Kedah.” Universiti Sains Malaysia unpublished research paper.
- Needham, Joseph. 1986.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ume 4, Physics and Physical Technology, Part 3, Civil Engineering and Nautics*. Taipei: Caves Books Ltd.
- Peacock, David P. S., Fathi Bejaoui and Nejib Belazreg. 1989. “Roman Amphora Production in the Sahel Region of Tunisia.”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 Rome* 114, 179-222.
- Perlingieri, Cinzia and S. Terry Childes. 2016. “The Production Area at Mersa/Wadi Gawasis: Evidence for Multiple Craft Activities.” *Abgadiyat* 11(1), 135-147.
- Petchey, Peter, Bérénice Bellina, Oliver T. Pryce, and Jitlada Innanchai. 2017. “A late prehistoric iron smithing workshop and associated iron industry at the port settlement of Khao Sek, Thai-Malay Peninsula.” *Archaeological Research in Asia* 13, 59-73.
- Polanyi, Karl. 1963. “Ports of Trade in Early Societie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1), 30-45.

- Sebire, Heather, Philip de Jersey, and Jason Monaghan. 2018. *Roman Guernsey: Excavations, Fieldwork and Maritime Archaeology 1980-2015*. Oxford: Oxbow.
- Strand, Eva Andersson. 2011. "Tools and textiles. Production and organisation in Birka and Hedeby." *Viking Settlements and Viking Society. Papers from the Proceedings of the Sixteenth Viking Congress, Reykjavík and Reykholt, 16th -23rd August 2009*, 1-17.
- Tan, Tai-Yong. 2007. "Port cities and hinterlands: A comparative study of Singapore and Calcutta." *Political Geography* 2, 851-865.
- Wallace-Jones, Sally. 2018. *Egyptian and Imported Pottery from the Red Sea port of Mersa Gausis, Egypt*. Oxford: Archaeopress.
- Wilkes, Eileen. 2004. "Iron Age Maritime Nodes on the English Channel Coast. An Investigation into the Location, Nature, and Context of Early Ports and Harbours." Unpublished PhD thesis, Bournemouth University.



Abstract

## Crafts Production at Trade Ports, Hubs of Civilization Exchange

Ilhong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Ancient trade ports were intended for the gathering and circulation of goods but some were also accompanied by crafts workshops, the presence of which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se trade ports.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Korean port-of-trade, Neukdo, this paper examined, in detail, the nature of the crafts activities that may have taken place, with particular focus on iron and pottery production. In addition, examples of other regions and time periods in which crafts production took place at trade harbors were also examined; this was done in order to construct a heuristic tool through which the phenomenon observed at Neukdo could be better understo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ree different scenarios were identified for crafts production at trade harbors. The first was the production of goods that were required is association with maritime activities. The second was the production of goods gener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oreign goods and technologies, which were ultimately intended for local consumption. The third was the production of goods as trade items for maritime trade. These three scenarios provide a basis for carrying out future research on crafts production at Neukdo.

**Keywords** | trade port, crafts production, iron, pottery, maritime activities

